

7 . 불 심 판

19981015 목 아침말씀(월명동 자연성전 전망대) 하나님의 행사 시111:1-5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2000년대에는 불로 심판하지 않고, 불보다 더 무서운 말씀으로 흑백을 가린다. 그것을 2000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다”하십니다. 이 일을 수십 년 전부터 이미 해오고 있습니다. 말씀에 들어온 자는 보다 심판권을 벗어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이니 말씀에 들어온 자는 보다 심판권에서 벗어난 것이고, 말씀에 안 들어온 사람은 아직도 불로 심판할 것을 두렵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심판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19970720 주일 지상천국 마4:17

공중에서 천국이 된다고 하고 불심판을 해서 꼬실러 죽인다고 하니까 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 생각해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신경쓸 것이 없기 때문에 머리가 안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공중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비행기도 없는데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하나만 생각해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불심판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만 심판 받지 않을 것이 아니니 기도할 때는 심판을 받을 것 같고, 성질을 낼 때는 심판을 받을 것 같고 그러니 천국 가기가 힘들겠다는 생각하면 늘 근심과 걱정입니다. 나는 불 심판을 한다고 해서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불 속에 손을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에게 혼이 났습니다.

“왜 불 속에 손을 집어넣느냐?”

“나무를 집어넣으려다가 그런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것 같다. 네가 좀 이상하다.”

나는 불심판을 한다면 어느 정도나 견딜 수 있는지 손을 넣어본 것이었는데 불이 뜨거운 것이 아니라 뜨거웠습니다. 그런 실험을 해 보니 불심판을 한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모두가 불심판을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죽일 지 몰랐어.” “그 사람이 나에게 낫을 휘두를 줄 몰랐어.” “그 놈의 고향이 어디였더라?” “그 새끼가 부활되었겠지. 한 번 가보자.” 하며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전부터 머리가 아픈 교리를 가르치고 있으니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쓰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똥똥한 사람들은 어떻게 휴거가 되느냐면서 살을 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삼각산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돼지같이 살만 찌고, 휴거 되기 전에 살을 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도 하며 별의 별 생각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쳐다보시고 “으하하하” 웃으시면서 “예수야, 어떻게 가르쳤기에 저 모양들이냐?”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웃음) 이렇게 사람들이 별의 별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은 내가 빨리 전도를 안 한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와 여러분들의 죄입니다. 먼저 깨달았으면 그들에게 쫓아가야지 왜 자기만 믿고만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어른들을 책임지라고 하면서 삼각산에 가보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19970814 목 아침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 창2:9

사랑과 진리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불심판하고 저주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심판은 사랑의 심판입니다. 사랑 안하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불이고 진리가 불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사랑은 불같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진리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대로 살지 못하면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심판입니다.